

## 새댁 되는 날



김 인 호  
(송원축산 이사)

어느 날 어깨쪽 등에 찬 기운이 있더니 엉덩이 쪽으로 찬 기운이 흘러 내렸답니다. 고개 돌려 위를 보니 주인께서 주전자로 내 어깨쪽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내 온 몸(얼굴·발 모양새·서 있는 모습·엉덩이·외음부·허리 길이·젓꼭지 생김새·젓꼭지 간격·젓꼭지 갯수·가슴·등 폭)을 살살이 훑어보고 난 후 나와 생김새(체격)들이 거의 같은 아씨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영문을 알아본 즉 곧 새댁이 될거라는 수근거림들이었습니다. 갖익은 젓꼭지 여덟 쌍이 밑가슴에 있었고 그 때 체중이 90 kg, 남이 간절하게 그리웠던 적이 한번 겨우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아씨들의 고민거리는 처음부터 떡두꺼비 같은 아들 여덟 놈, 씨받이 딸 여덟을 처음부터 낳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전자 세례를 받은 이상 이 집 귀신이 되는 날까지 주인을 잘 모셔야 된다고들 수근거렸습니다. 주전자 세례는 다른 후보 아씨들도 모두 받았다고 하며 꼬

리쪽으로 찬 기운이 모두 빠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라는 노래를 부르는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난 후여서인지, 모처럼 길놀이를 해서인지 피곤해 벅짚 위에 쓰러져 푸근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 일명「주전자 선발법」으로 후보돈 선발하면 양돈선진국 대열에 끼일 수 있어

이상은 후보돈(♀)으로 선발된 어느 처녀돈의 회고담 일부이다. 위의 내용과 같이 사양관리에 앞서 선행되어야 될 점이 바로 품종선택과 선발과정이다. 일명「주전자 선발법」으로 후보돈을 선발한다면 우리나라의 양돈도 머지 않아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게 되리라 믿어진다.

“새댁되는 날”까지를 회고록으로 다시 엮어 보고자 한다.

처음 한 달은 배가 고달팠습니다. 주사도 두 대나 맞고(돈콜레라·파보바이러스), 구충약도 처음 들어오던 날 복용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주는 주인이 그렇게도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프게 하는 것은 우리들을 건강하게 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달째는 운동장에 나가 마음껏 뛰놀게 해주었습니다. 사료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뛰어 노는 운동량으로 해서 몸이 불지는 않았습니 다. 식사 시간 때가 되면 남성 후보들은 야단 법석을 떨어댁니다. 맨 나중에야 식사 배급을 해주기 때문이죠. 앞이 막혀있는 담쪽으로 두 발을 얹어 놓고 아우성치는 남성 후보들이 측은해 보였지만, 그렇게 해야(승가훈련) 혼례식을 치루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남성 후보들도 “주전자 세례”를 모두 받았다고 하며 그래서 그런지 체격들이 꽤나 우람해 보였습니다.

**“석달째는 아씨방으로 이사를 가서 주사를 또 두대 맞았습니다.”**

석달째는 다시 아씨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사를 또 두 대(파보바이러스·일본뇌염)나 맞았습니다. 이제는 꽤 성숙된 감이 들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선배들이 혼례를 치루러 가는데 체중이 140kg쯤 돼 보였습니다.

“먼저 갈테니 곧 뒤따라 오너라” 손짓하며 하나 둘 씩 아씨방을 빠져 나갔습니다. 석달째 들어와서는 하루에 두번 배식 받았습니다. 양껏 배불리 먹지 못했지만 몸매를 가꾸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1일 2.5kg~3kg).

어느 날 태몽이 있었습니다. 고추밭에서 고추를 치마폭에 한아름 담고, 보리밭에서 보리를 여덟 가마나 추수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후로 얼굴에 화사한 기운이 돌더니 담을 뛰어넘고 싶

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주인께서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선배들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궁합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표의 색깔은 빨간 색이었는데, 낭군의 방 앞에는 노란색 바탕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예전 건너방에서 유난히도 큰 목청으로 떠들어댔던 마음속의 낭군이었습니다. 낭군과 난 혼례방으로 갔습니다. 벧짚이 푸짐하게 깔려있는 평평한 방이었습니다. 이 날 이후로 새댁이 되었습니다.

**후보돈 관리시 유의해야 되는 점 중의 하나는 「위장발육」이다.**

이상은 후보돈 관리의 요령을 적은 것이다. 후보돈의 초교배체중이 140kg 정도로 완숙되어야 함은 첫 포유부터 12두 이상 포유개시를 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처음 유선 발육은 최종 경제산차에 이르도록 포육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또한, 후보돈 관리시 유의해야 되는 점 중의 하나는 「위장발육」이다. 섬유질을 가능한 한 무제한 급여시켜 새끼생육시 많은 양의 사료를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로 훈련시켜 주어야 되는 점이다. 육성단계에서부터 섬유질 배려가 있어 준다면 경제수명을 더욱 연장시켜 주게 된다. 후보돈 선발시 고려해야 될 점은 경제형질(산자수·산육성·부모의 경제수명간 총 생산능력)이 우수했던가도 참조해야 되는 점이다.

1년 농사가 봄갈이(밭갈고 씨뿌리기)에서부터 비롯되듯, 양돈의 전체 생산성은 후보돈 선발에 이은 초교배·첫포유에서부터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결국 돈(豚)이 돈(錢) 되려면 후보돈이 “새댁되는 날”까지의 관리가 충실하게 되어 줘야 한다. 